



## 重傳 이희빈 가나다라행시 제 4 권

重傳 이희빈

## 소개글

이 땅에서 다시는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시대 일본에서 쳐들어와 사적자료를 모두 없애버렸으며 독립운동가들은 그 증인들의 노력으로 위와 같이 추모비를 세웠는데 그 증인들의 노력으로 세운 추모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 관리하면서도 국가에서는 불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 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목차

1	가나다라.....(312) (지적인 미를 연출하려면)	8
2	가나다라.....(311) (포도대장은 착복하기 바쁘구나)	9
3	가나다라.....(310) (상봉의 그날이 오려나)	10
4	가나다라....(309) (소중한 산림자원)	11
5	가나다라.....(308)(자욱한 안개길)	12
6	가나다라.....(307)(너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13
7	가나다라.....(306) (서당의 옛 추억)	14
8	가나다라.....(305) (강제징용)	15
9	가나다라...(304) (내동맹이 처진 민심정치)	16
10	가나다라....(303)(고향산천)	17
11	가나다라...(302) (고층 건물속에 실업자)	18
12	가나다라....(301) (원님네들께 부탁드리며)	19
13	가나다라.....(322)(잘못된 과소비 생활구조)	20
14	가나다라.....(321)(때 아닌 폭설)	21
15	가나다라.....(320)(바느질 하시던 어머니)	22
16	가나다라.....(319) (인간은 욕심쟁이)	23
17	가나다라.....(318) (선물상자)	24
18	가나다라.....(317) (자신에 대한 다짐)	25
19	가나다라.....(316) (태극기로 뚫뚫 뭉쳐야 한다)	26
20	가나다라.....(315) (독립운동가의 생애)	27
21	가나다라....(314)(독립운동사에 붙여)	28
22	가나다라.....(313) (국민을 속이지 마시구려)	29
23	가나다라.....(332)(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30
24	가나다라.....(331)(고속전철 시대의 종자돈)	31
25	가나다라.....(330)(능지처참)	32

26	가나다라.....(329)(무아지경에 빠진 향락)	34
27	가나다라.....(328)(추락하는 도덕)	35
28	가나다라.....(327)(연기만 날때)	36
29	가나다라.....(326)(초유의 사태)	37
30	가나다라....(325)(고삐에 묶인 동물)	38
31	가나다라....(324)(늘어나는 가계 부채)	39
32	가나다라.....(323)(우리 민족의 저력)	40
33	가나다라....(342) (환절기)	41
34	가나다라.....(341)(천륜이 끊어진 세상)	42
35	가나다라.....(340)(제똥이 구린줄 모르고)	43
36	가나다라.....(339) (물 한 그릇의 고마움)	44
37	가나다라.....(338) (무슨 낮으로)	45
38	가나다라.....(337)(어려움을 모르고)	46
39	가나다라.....(336)(삼팔선의 한)	47
40	가나다라....(335)(조각구름이 이 마음을 알거나)	48
41	가나다라.....(334)(탄핵 소추안 가결되던 날)	49
42	가나다라.....(333)(해법을 찾아서)	50
43	가나다라.....(352) (어제가 반세기)	51
44	가나다라...(351)(역사를 왜곡하지 말지어다)	52
45	가나다라...(350)(오래전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보면서)	53
46	가나다라...(349)(종잡을 수 없는 인간)	54
47	가나다라....(348) 시시비비(是是非非)	55
48	가나다라....(347)(그 때 그 이웃집 순이)	56
49	가나다라.....(346)(환경 오염)	57
50	가나다라.....(345)(채신머리 없는 행동)	59

51	가나다라.....(344)(잔인하게 유린당한 인권)	61
52	가나다라.....(343) (저승에서 부르는 통일)	62
53	가나다라.....(362) (심각한 수질 오염)	63
54	가나다라....(361) (이양기를 바라보며)	64
55	가나다라.(360) (늪은이 보고 비웃지 말라)	65
56	가나다라....(359) (노약자 보호석)	66
57	가나다라.....(358) (좋은 사고)	67
58	가나다라...(357)(청계천 복원 공사)	68
59	가나다라.....(356) (학부모의 고민)	69
60	가나다라.....(355) (선사 유적지)	70
61	가나다라...(354) ((희죄어천)이면 (무소도야)나라)(獲罪於天 無所導也)	71
62	가나다라...(353)(국민을 두려워 하라)	72
63	가나다라....(372) (모난 돌이 정 맞는다)	73
64	가나다라.....(371) (청결)	74
65	가나다라.....(370) (양지와 음지)	75
66	가나다라.....(369) (소중한 물)	76
67	가나다라....(368) (부양료 청구 소송)	77
68	가나다라.....(367) (어느 해 시골 농부의 마음)	78
69	가나다라.....(366) (보리개떡 사연)	79
70	가나다라.....(365)(노인 문제)	80
71	가나다라.....(364) (자식의 흥)	81
72	가나다라....(363) (永世是寧하소서)	82
73	가나다라.....(382) (랑자의 마음을 잡으려면)	83
74	가나다라.....(381) (금궤 밀수 사건을 보면서)	84
75	가나다라.....(380) (언론이 정론직필을 하여야 국민들이 편안하지요.)	86

76	가나다라.....(379) (무더운 여름 날 운전수의 심정)	88
77	가나다라.....(378) 학발(鶴髮)	89
78	가나다라....(377)(속아버린 사랑)	90
79	가나다라...(376)(불효는 불효를 낳는다)	91
80	가나다라...(375)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92
81	가나다라.....(374)(짧은 인생)	93
82	가나다라.....(373) (집념)	94
83	가나다라..(392) (크레임이 간 인생열차)	95
84	가나다라...(391) (루마니아 여인의 소원)	97
85	가나다라.....(390) (상생(相生))	98
86	가나다라.....(389) (세상풍자)	99
87	가나다라..(388)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	100
88	가나다라.....(387) (주소 없는 편지)	101
89	가나다라.....(386) (재개발 지역에 서민들을 보며)	102
90	가나다라.....(385)(부익 부 빈익 빈)	103
91	가나다라....(384) (민며느리의 생애속에 남편의 생각)	104
92	가나다라.....(383) (그만 불거라)	105
93	가나다라.....(400) (노랑이)	106
94	가나다라.....(399) (수렁으로 밀어넣는 사람들)	107
95	가나다라.....(398) 어느 해의 입추(入秋)	108
96	가나다라.....(397) (오욕의 역사를 수수방관하는 관료들)	109
97	가나다라....(396) (금수 같은 망나니)	110
98	가나다라....(395) 사람이 늙으면	111
99	가나다라.....(394) (로자리오)	112
100	가나다라....(393) (삼복지경)	113

**기**분이 상쾌할 때에는 그렇게도 잘 웃던

**니**가 몸이 아프니 웃음이 나올리가 없지!

**디**지탈-카메라(digital camera)에 비친 니 얼굴이 도저히

**리더**([leader])로서의 모습은 간 곳이 없구나!

**미**소를 억지로 지으려고 하니 얼굴이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입술은 아픔을 참느라고

**시**뻔뻔하게 닳아올라 열기를 내뿜는구나!

**이**런 모습을 사진속에 담아봐야 별로

**지**적(知的)인 미(美)를 연출할 수 없겠구나!

**치**렁치렁한 머리로 귀신같이 느껴지고

**키**가 큰 것도 전봇대로 표현되기 쉽구나!

**티**없이 맑고 고왔던 그 모습을 되찾으려면

**피**차간(彼此間)에 마음이 맞아야 자연스럽게

**히**죽이 웃음이 터져나와 건강도 회복하겠지...?

**고** 집과 아집을 구분하지 못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로**또복권과 바다이야기로 빼앗아

**모**진세상 왜곡된 역사속에서

**보**은(報恩)을 모르고 악행을 일삼아 악의

**소**굴로 내몰고 있었구나!

**오늘**도 중심을 잃은 법으로 도(道)를 어기는구나!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초**전박살(初戰撲殺) 당하기 전에

**코**흘리게 어린아이들에게

**토**지대장 번지수도 바꾸고

**포**주노릇을 하여 착취했는데도

**호**통을 치는 사람보고 잘못이라네!



**고**요한 적막감이 감도는 휴전선에서 적진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매서운데, 감히 어찌

**도**발을 해올 것인가...?

**로**그-인(log-in)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강산 삼 천리는

**모**두의 슬픔이요! 탄식인데, 언제쯤에나 부모형제

**보**듬어 안을 상봉의 그 날이 오려나...?

**소**리쳐 부를 기운마저 없는 늙은 몸이 되어, 결국

**오**마니...! 아바이...! 다 늙어 죽는구나!

**조**국의 끊어진 허리를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초**병들의 눈초리는 이리도 빛나는데

**코**앞에 저 산 너머, 저기! 저 강 건너, 고향은

**토**해내는 이 절규가 들리는지? 마는지? 대답이 없네..!

**포**대경 속에 비친 저 하 늘 아래, 저 마을에도

**호**호백발이 된 이산가족이 울고 있을텐데....!

**꺼**진 담배불이라고 안심하고 함부로 던져버리면

**너**무 엄청난 화재로 이어지기에, 행락철을 맞아

**떠**들며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불조심을 게을리하면

**러브**-신(love-scene) 을 연출하듯 곱게 자란 나무들을 다 태워

**머**리를 다 깎아버린 민둥산을 만들게 되지요.!

**빠**꼭새 우는 소리를 듣고, 집을 지을 때 소중하게

**써**야 할 재목들을 얻으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산불을 조심합시다!

**쩌**렁쩌렁한 메아리 소리가 들리는 산에서

**처** 자식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아름답게

**커**가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터**를 잡고 즐겁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퍼**져가는 산울림 소리와 각종 엽록소(葉綠素)의 향(香)을

**허**파 깊숙히 들여마시고 싶다면, 산불을 조심합시다!

**가**시거리가 짧은 안개 낀 도로에서는 앞으로

**나**아가 달리기가 힘들지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간메 준(準)하는

**라**이트[light]를 켜고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마**치 ` 나, 여기 있으니 주의하시오! ` 하고

**바**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나절에 지역에 따라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는

**차**량의 안개등 및 미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시오!

**카**-레이서([car-racer] )처럼 신나게 고속주행을 하다가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말고, 자신도 또한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말도록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철조망을 두른

**난**간을 잡고 서서, 북녘 땅을 바라보니...!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 뿐이네!

**란**봉 피지척 주거, 이불 생사유무(難逢 彼咫尺 住居, 爾不生死有無)?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또 오려고 하는데.....

**반**만년이 지나도록 어이하여 통일은 안 오는가...?

**산**너머, 강건너, 철새들은 자유로이 넘나드는데.....

**안**부조차 물어볼 수 없는 이 철 조망이 원수로다..!

**잔**주름 눈가에는 눈물만 가득 고여 흘러내리고

**찬**서리 기러기만이 울며 날아 내마음을 달래주네..!

**칸**칸이 조밀하게 설치한 철조망을 원망하며

**탄**식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인가...?

**판**문점, 자유의 다리 건너갈 사람 이리도 많은데, 이 나라

**한**반도 통일의 문은 언제쯤 통과시키려나...?

**란**봉 피지척 주거, 이불 생사유무(難逢 彼咫尺 住居, 爾不生死有無)?

가까운 지척에 살면서도 만나기가 어렵고 너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글**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귀에 쟁하게

**늘** 그렇게 들렸던 서당의 옛 추억을 찾아

**들**러보니, 이제는 폐가(廢家)가 되어버렸구나!

**들**자(字)를 조사(助詞)로 쓰인다고 가르쳐 주시더니

**들**자(字)를 어디에 쓰는지 여쭙어 볼 훈장은 안 계시네!

**들**럭집 파란대문 그 옛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픈 표정으로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쓸쓸하고

**들**씨년스럽게 노년을 보내시던 훈장 선생님께서

**들**겨 부르시던 시조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며, 죽으면

**들**자(字)처럼 쓸데가 없게 된다고 슬퍼했다...!!

**들**대로 커버린 느티나무를 쳐다보니, 까치가 집을

**들**어 짓느라고 열심이구나...!

**들**러스(plus)만 되는 인생의 무상함은 저 하늘에

**들**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을... 어찌 몰랐을까...?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일제치하  
**노**무자로 강제징용 끌려가서, 산을 깎아  
**도**로 만드는 일을 하며, 사할린 땅에서  
**로**우프에 의지한 채, 암반을 깎으면서  
**모**르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날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기회를  
**소**리없이 진행하며, 북해도를 건넜지요!  
**오**직 고국으로 오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당시에는  
**초**조한 마음으로 일본군과 대립하며  
**코**앞에 온 광복을 기다린 끝에 그 기쁨을  
**토**하며 태극기를 들고 억눌렀던 그 세월을  
**포**효하듯 만세소리 들렸는데 탱크를  
**호**위하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지요!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리십니까?

**날**이 시퍼렇게 서있는 칼을 들고, 국민들을

**달**래주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랄**랄라~ 한쪽에선 풍악이 즐거운데, 없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병든 자들은 신음소리 처량하구나..!

**발**군의 정치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 이 겨울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된 곳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버리는 정책보다, 그들을

**잘** 보살피고, 배려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십시오...!!

**찰**흙같이 끈끈한 민심정치를 총선 때만 표현하고

**칼**을 다 쓴 뒤에는 내동맹이 치는 두 얼굴의

**탈**을 쓰고 국민을 배반하는 일, 이제는 그만 하십시오...!!

**팔**이 안으로만 굽는 것은? 사랑으로 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하느님의 뜻을 명심하십시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처럼, 대대로

**눌**려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온지 수 십년이 지나, 다시

**돌**려본 고향산천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구나!

**룰**(rule)을 벗어난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물**이며, 산이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옛친구들은 어디에 있으며

**술**래잡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자치기하며 놀던 시절!

**울**창한 나무들도 온데 간데 없고, 가난이 싫어

**줄**인 배 채우려고 고향을 떠난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출**렁다리 밑에서 물려다니던 민물고기떼 하며

**쿨**쿨 낮잠을 즐기던 산토끼가 깜짝 놀라

**틀**틀(투덜거리다의 사투리로 씀)거리며 달아나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풀** 피리, 벌레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화음을 내며

**훌**륭한 연주를 하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굴**비 한 마리 구경도 못하던 시절...!

**눌**른 보리쌀에 강냉이 죽도 못먹던 시절.....!

**둘**둘 말은 명석을 안마당 뜰에 펴놓고

**룰**(rule)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칭칭시하에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웃어른부터 드려야 하고

**불**아궁이 앞에서 바가지에 누룽밥을 퍼서 먹던 시절...!

**술**상 보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안주거리 만들려고

**울**타리 밑에 심어 놓은 더덕을 캐서 손질하던 시절...!

**줄**어든 뒤지(쌀통)를 들여다 보고, 배가 더

**출**출하게만 느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쿨**쿨 낮잠이나 즐기는 백수들을 보면서, 귀찮다고

**틀**틀거리며 불만을 토로하는 일 그만하고, 이제는

**플**어진 구두끈을 짝 조여매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홀**쩍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대국을 만듭시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아궁이에서 불을 땃기 때문인데

**눌**려 입을 틀어막고, 아니라고 우길 것인가?

**둘**도 없는 이 나라의 헌법을 무시하고

**룰**(rule)에도 없는 행위들은, 이제는 아니 했으면 좋겠네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힘이 안들고

**불**은 항상 아래서 위로 타기를 좋아하는데, 어찌자고

**술** 한잔 먹고 정도(正道)를 벗어나 국민들을 이리도

**울**리고 있단 말입니까?

**줄**타기하는 곡예사같은 연출은 이제 그만하시고

**출**출한 국민들의 배를 좀 채워 주시구려....!

**쿨**쿨 잠들어 있는 의사당 건물 안에서 기상하여, 제대로 된

**툴**(Tool)에 의한 입법이 만들어져 산재해 있는 안건을 잘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나라에

**훌**륭한 원님네들 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오.....!!

**가**장(家長)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나**라에는 충성을 해야하는 등, 모든것이

**다** 힘들고 어렵지요...! 잘못하다가는

**라**면은 커녕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마**음은 항상 괴롭기만 한 것이 요즈음 남자들이지요..!

**바**로 이러한 현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못하여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지요...!

**차**라리 내탓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과소비로

**카**드 빚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타**워 크레인(tower-crane) 위에 올라가서 자살할 생각을 한다면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늘을 향해 굳은 각오로 임하신다면,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몰려오더니 많은 눈이 내렸다.

**누**구나 설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리라고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예상하지 않고 있었지요!

**루**천(漏天)같이 퍼붓는 눈을

**무**슨 수로 인간이 막으리오...!!

**부**서진 축사며, 비닐하우스 속에 채소들이

**수** 없이 망가져 버렸으니... 농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클꼬...?

**우**물쭈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마치

**주**차장이 되어버린 길에서 몇 시간씩 차안에 갇혀

**추**위에 떨어야 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우유와 빵, 그리고

**쿠**키와 같은 것으로 요기를 하면서도

**투**명하지 못한 세상,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난 때문에

**푸**념을 하며, 화물을 놔두고 떠나 지도 못하고 손을

**후~후~** 불면서 그 고생을 한 것은 인간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루천(漏天) : 하늘이 샘. 곧 비가 지나치게 옴을 이르는 말.

구명난 양말이며 찢어진 옷소매를

누구가 보더라도 바느질 숨씨하며

두고 온 그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니

루안(淚眼)이 촉촉하게 젖어서 내리누나..!

무엇이 많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부슬비 소리없이 내리는 날이라도

수놓듯 방문앞에 밝은 곳 앉으시어

우리집 가족들의 옷이며 양말짝을

주무시기 전까지 어두운 등잔불 밑

추운밤 화로불에 인두질 하시면서

쿠렁한 배를 채워 밥비벼 주셨지요.

투레질 하게되면 비온다 하시더니,

푸르르~ 투레질을 하더니,비가 오네.

후덕한 그 어머니 그림고 뵈고 싶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나**쁜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지요...!

**다**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든

(라틴 어(一語) [the Latin language](#))

**마**찬가지로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보다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생각하기 보다

**자**기 자신만 사랑해 달라고 하지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자신만 먼저가려고 하고, 마치

**카**레이서([카레이서 a \(motor\) racing driver](#))처럼 자기 외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요...!

**파**도가 높으면 항해를 할 수 없는데, 자신의 선박(船舶)이라고

**하**등의 관계가 없을까요..?

**꼬**리표가 붙은 선물상자를 앞에 놓고

**노**란색 포장지를 벗겨보니, 사랑하는 그 이가

**또** 선물을 보냈구나.....! 그 이의

**로**즈마리 향이 듬뿍 풍기는 정성을

**모**아, 예쁘게 보내준 그 선물에 입술을 대고, 나는

**뽀**뽀를 해주고 기뻐했다.....! 때로는

**쏘**다니며 기분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줄 때도 있지요..!

**또**들리며 어렵게 살면서도 마음만은

**초**지일관하는 그 이가 너무 좋았지요..!

**코**가 유난히도 크게 생긴 그 이의 모습을 그리며

**토**요일 오후에 돌아오면 뜨거운

**포**옹을 하며 기쁘게 맞이하리라...!

**호**감이 가는 그 이를 나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다짐을 해본다.

**너**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여라도 화를 내지 말 것이며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며

**러브**-송(love-son g)을 부르듯 모든 사람들에게 입안 가득

**머**금은 이 미소로 대하리라..!

**버**려진 폐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리라...!

**저** 거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처**세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커**다란 덕을 쌓는 일에 결코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터**널 안처럼 어둡고 탁한 공기가 아니라, 맑은 공기를

**퍼**더버리고 앉아 흠뻑 마실 수 있도록 신선함을 제공하여

**허**브향이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가**가호호 집집마다 태극기 물결이 넘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온 국민들 모두가

**다**숙연해지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토록

**라**선형으로 비비 꼬이고, 억눌렀던 비참한 역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시는 이 땅에 비극적인

**바**람이 불지 않게 되기를 갈망(渴望)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이러한 외침을 막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아**집과 반목과 분열을 중단하고, 일치단결하여 이 나라의

**자**주국방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을 하루속히

**차**질없는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카**톨릭이든, 불교든, 종교를 초월하여 온 국민이 화합하면

**타**국에서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보지는 못하지요!

**파**국을 면치 못했던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뚫뚫 뭉쳐야 할 것이다!

**고**문이 혹독하게 자행되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노**인은 눈시울을 적시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문을

**로**봇처럼 생각없이 저지른 일제 침략자들에게

**모**진 형벌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보**무당당(保武堂堂)하게 맞서 항일투쟁을 하였지요!

**소**지(燒紙)종이 받쳐들고 두 손 모아 빌기를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외쳤지요!

**조**국은 독립되자, 남북으로 허리가 잘리고

**초**상집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그 전쟁이

**코**앞에서 일어나고 말았으니.....! 울분을

**토**하며 외치기를,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동족의 가슴에 겨눈

**포**신(砲身)을 내리고, 이 나라,이 민족이 하 나 되기를

**호**국영령(護國靈靈)들 앞에 두 손 모아 비읍니다!

**구**름같이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불렀지요.

**루**안(淚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고

**무**명치마 졸라맨

**부**녀자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우**뢰와 같은 함성으로 외쳤던 그 만세소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리 소설도 아니고, 먼나라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민족이

**투**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억눌려

**푸**념을 하던 식민지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일로

**후**대(後代)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외침소리라오!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들지 마시구려!

**녹**은 쇠가 달구어지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독**이 약하면 수해를 건디기 어려운 것이라오.

**룩**작(Rucksack : 등산용 배낭)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다고 속이고, 금품을 넣어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을

**복**망산천 바라보며 한숨짓게 만들지 마시구려..!

**숙**연한 마음으로 각성을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육**박 지르고 민의(民意)를 수렴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죽**으란 말이나 다름 없을 것이오..!

**축** 늘어진 무거운 짐을 진 어깨를 풀어 주시고, 사지가

**쿨**쿨 쉬시도록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특**하면 불거지는 비리와 부패가 이 나라를

**푹**푹 썩게 만들고 있오이다..! 옆드려 비웁건데

**훅**~하고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서민들을 살피시구려.....!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밥을 퍼먹는

**널** 보니까, 배고팠던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덜** 익은 보리이삭을 잘라다가 밥을 해먹던 그 시절에 비하면

**렐**렐렐~거리며 맛있게 먹는 너의 모습이 부럽구나.....!!!

**멀**고 먼 야간학교를 걸어다니며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낮에는 일을 해야 했던 그 때 그 시절의

**설**명을 어찌 다 할 수 있으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숨이

**절**로 나오기만 했던 그 쓰라린 과거를, 네가 이 다음에

**철**이 들면 이 부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컬**러링(color-ling)에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을 사달라고

**틸**씩 주저앉아 조르는 네 모습이 기가 막히구나.....!!!

**펼**~펼~ 내 리는 눈을 밤새도록 맞으며,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었었는데.....!!!

**고**속전철이 마치 총알처럼 달리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컸을까? 시승 소감은 환상의

**도**가니처럼 마치 총알탄 기분 같다고 하지요....!

**로**링(rolling: 흔들림)이 전혀 없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모**든 승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지요..!

**보**릿고개가 계속되던 그 옛날에 비해, 어느 나라에

**소**개해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불철주야

**조**석으로 열심히 일을 한 덕택이지요..!

**초**고속 통신망은 물론이고 반도체를 비롯한

**코**앞에 기적같은 현실들이 결코 우연일까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으로

**포**크레인(forkrane) 및 중장비를 이용하여 일을 한 결과

**호**남지방 및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이 되었지요....!

금지(矜持)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동적(能動的)으로 행동하며, 선행(善行)하며, 봉사하는데

등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비겁(卑怯)한 행위를 하면

릉지처참(凌遲處斬 : 능자는 음운 법칙 )을 당할 것이오!

릉자(字)를 들고 와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물어보고

릉자(字)를 써놓고서 탄핵사유가 되느니? 안되느니?

승소(勝訴), 패소(敗訴) 결정하듯, 민생안정을 위해 힘쓴다면

응당(應當)히 국민들이 쌍수(雙手)를 들어 환영할 것이오!

증오(憎惡)와 갈등(葛藤)으로 얼룩진 현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저 높은

층계(層階)를 언제 올라가려나...?. 한숨만 절로 나오네...!

쿵쿵대고 냄새를 맡는 수사견(搜查犬)처럼 쌍방이

통자(字)를 갖다 놓고 위법이다! 아니다! 싸우고 있고

퐁자(字)를 써놓고서 서로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구**심력(求心力)을 찾지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중심을 잃게 되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악성

**루머** [rumor]에 휘말려 한 마리도 못잡을 것이오!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향락보다 몸이

**부**서지도록 남을 위해 봉사하고 진정으로

**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

**추**악한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기름진 배보다

**쿠**렁쿠렁하게 배가 조금 비어 있어도 이웃의 웃음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정녕 아름다운 삶이요....!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처럼 탁트인 속이

**후**련하게 맑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오....!



**가**는 이 잡지 말고, 오는 이 팔세 말라...!

**나**이 많다 행세 말고, 나이 적다 멸시 말라.....!

**다**리가 성하다고 목발 짚은 사람 비웃지 말라.....!!

**라**면을 먹는다고 서러워 말고, 고기를 씹는다고 자랑 말라.....!

**마**음속이 검게 되면, 눈 마저 검어지거늘...

**바**른 마음 갖고 살면, 육신은 고달퍼라,,,,,!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거늘

**아**서라! 말어라! 추락하는 도덕과 윤리를 어찌하라....?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제자가 스승을 모르는데

**차**떼기 돈뭉치가 서민을 어찌 알꼬....???

**카**네이션 꽃의 꽃말을 모르는데, 어찌 인륜(人倫)이

**타**락하지 않으리오..! 이제라도 오는 봄 산과 들에서

**파**랏 파랏 돌아나오는 새싹처럼 때묻지 않은 몸에

**하**얀 속옷을 걸치고,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오,,!!!

**가**관(可觀)인 일연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다**이 나라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죄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오!

**마**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을, 마치

**바**퀴 벌레 번식하듯 확산되는 갈등을 어찌하리오!

**사**방에서 물고 뜯으니 견딜 수 있으랴....?

**아**프다고 울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자**동으로 소멸되는 증상도 아닌 것을

**차**라리 이꼴 저꼴 보지 않고 죽든지, 아니면

**카**나리아 제도로 이민을 보내든지, 해야지....! 마치

**타**다가 꺼져버린 장작처럼 연기만 피어나고

**파**를 다듬는 사람처럼 눈만 에려오네!

**하**향곡선(下向曲線)을 그리는 서민들만 불쌍하구나!

**카나리아~제도Canaria諸島** : 〈지명〉 아프리카 서북부 부근에 있는 에스파냐령의 섬의 무리.

포도, 사탕수수, 바나나 따위가 나며 카나리아의 원산지로 유명하다. 면적은 7,242㎢. [비슷한 말] 카나리 제도.

**고**성(高聲)이 오고가는 이 나라 지도계층들은 제발  
**노**래방에나 가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여 그렇게 마치  
**로**또복권에 인생을 건 것처럼 의사당 안에서  
**모**가 나게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고, 하더군요!  
**오**르지 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조**석(朝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눈앞에 펼쳐진 사상  
**초**유(初有)의 사태를 보고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오!  
**코**밑으로 떨어지는 콧물은 막기 어렵다더니, 잘못 구워진  
**토**기(土器)는 깨버리는 수 밖에 없듯이, 새로 시작해도  
**포**용력이 없는 또 그런 개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호**오스(hose)를 대기 시켰다가 물을 뿌리는 것이 어떨런지요...?

간신히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나 했더니  
난리 법석 끝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단상에서 벌어진 국회의 사태를 지켜보고  
란감(亂感)한 심경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만천하에 진동하고 있는데, 원님네들은  
반성은 고사하고 이 나라에 엄청나게  
산적한 국회의 안건들이 처리되기는 커녕,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직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잔설(殘雪)속에 짓눌려 압사(壓死)당한 동물처럼  
찬바람만 몰아치는 구나....!! 동물이 왈(曰)  
칸막이와 고삐로 묶어놓지만 앓았어도 죽지는 앓았오...!  
탄핵이 능사만은 아니었을 텐데...! 폭언과 폭력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어찌  
한국의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고

**나**라경제는 휘청거리는데 보다 신중하게

**다**듬어진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디에이터(radiator : 방열기)가 끓아터진 것처럼 새는데

**마**구잡이식 땀질을 한다고 경제가

**바**로 설리가 없지요!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못해먹겠다고 성화들이고

**자**고나면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서민들은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군요...!

**카**지노에서 룬싸롱에서 흥청망청 즐거운데

**타**고난 팔자타령해야 소용도 없을

**파**산 직전의 서민들은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을

**하**여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아우성이네...!

**가**재는 게편이라 하는 말도 있는데

**나**의 민족을 어찌하여 그렇게 외면하리!

**다** 죽어가는 서민들과 기아들을 보면서

**라**스베가스에서 모르는척 할 수는 없지요,,

**마**니산 참성단의 단군 할아버지 위상을

**바**로 이어받은 이민족의 저력을 발휘하여

**사**랑이 넘치는 홍익인간의 뜻을 이해하고

**아**집과 반목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하리오!

**자**랑스런 민족적 긍지를 살려 온 국민이

**차**세대는 남북통일된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카**니발 축제를 벌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타**국의 모든나라의 모범이 될수있는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는

**하**머니를 연출하는 제 일등 국민이 됩시다!

거꾸로 세월이 가는지? 아침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선불리 옷을 얇게 입고서 낮에  
더웁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마치  
러시아에서 부는 찬 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덜덜 떠는구나.  
바선에 숨바지 생각이 절로 나는 이 계절에  
서투르게 봄을 맞이하려다가 감기가 걸렸구나.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네가  
저 잘났다고 멋을 내려다가 감기가 들었으니...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빨리 먹어라...!  
커다랗게 병을 키우지 말고 초기에 모든 병이  
터를 잡지 못잡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퍼져가는 독감 바이러스(virus)가 몸의  
허약한 곳에 침투하면 고치기 어려우니라!

**감**격적인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으로 끊어진 이 나라의 허리는, 높은

**담**과 철조망으로 막히고 말았구나.....!!!

**람**욕(濫慾)의 무리들은 오늘도 사리 사욕에 취해

**맘**대로 계락을 꾸미고 있으니...! 힘 없는 사람들은

**밤**마다 꿈길마다 눈물로 지새우네.....!!!

**삼**팔선이 원수로다...!! 철천지 한이로다.....!!

**암**울한 이 난국을 근심과 걱정으로 이 밤도

**잡**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며 지새우네.....!!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다 지쳐버린 늙은 몸이

**캄**캄한 방안에서 천추에 한을 못풀고 죽는구나..!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이 천륜(天倫)을 무시하고 무덤을

**팜**은(동명사적 표현)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함**께 이 민족이 뭉쳐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라.....!!!



**가**마 밑이 노구솔 밑을 겹다! 고, 한다는 말처럼

**나** 자신의 잘못과 흉을 모르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흉을 보는 경우가 많지요...!

**라**이트(light)급 선수가 해비(heavy)급 선수와

**마**주 경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둑 바둑 덤벼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오!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어두워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차**후에는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오!

**카**운셀링(counseling)을 해주는 것을 뿌리치지 말고

**타**성적(情性的)인 나쁜 습관을 빨리 고쳐서

**파**산절차를 밟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그만 일도

**하**치않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지럭 거리며 밥투정, 반찬투정을 하는

**네** 모습을 보니, 배고픔을 모르는구나....!

**떼**꼭 먹고 상을 치우거라.!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레**몬(lemon)즙을 넣어 맛있게 만들었는데, 속이

**메**스껍다느니, 맛이 없다느니, 딱딱하게

**빼**(빼의 고어)가 있다느니, 투덜거리는 것을 보니

**씨**일즈 맨(sales man)시절, 돈 한푼 이라도 아끼려고 점심도 안사먹고

**에**헤~하고 수돗물 한 사발 얻어마셨던 그 때가

**쩌**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물도 감사하게

**체**감(體感)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네...!

**케**첩(ketchup)에 길들여진 입들이 김치를 외면하면

**테**에마(tema : 그리이스 어)를 파악할 수 없게 될지 모르니

**페**널티(penelty)를 물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헤**프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감(加減)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나**는 바람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만을 들추기 바쁘구나!

**라**피다멘트(rapidament : 음악의 빠르게)처럼 흐르는 시간이

**마**냥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바**싹 다가온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요!

**아**까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다니..... 서럽대고.....

**자**만에 빠져 무한정 살아갈 것처럼,악행을 하고 선행은

**차**일 피일 미루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고 미루다가

**카**메라(camera)에 찍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타**아(他我)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파**계승(破戒僧)처럼 정처없이 떠도는 몸이 되어

**하**면목(何面目)으로 세상사람들을 만나겠오...?

**골**이 잔뜩 난 얼굴을 하고, 제대로

**놀**지도 않던 막내동이 아들녀석을 달래려고

**돌**려앉혀 놓고 왜? 그러느냐? 고, 묻자

**롤**러브레이드(roller-blade)인지? 린라 인-스케이트(lin-line skate)인지?

**몰**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달라고 하네..

**볼**에는 눈물자욱이 그대로 남아 있고, 마치

**솔**개가 날개짓을 하듯 두 팔을 벌리고, 말에

**올**라타듯 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줄**라대니 안 사줄 수도 없는 노릇일세!

**출**랑거리며 날씨가 추운데도 밖에서

**쿨**룩쿨룩 거리며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모습을 보니

**톨**스토이(Tol-stoy)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에 마치

**폴**카 댄서(pol-ka dancer) 같이 밝고 명랑한 것이, 노는 재미에

**홀**랑 빠져 저녁 때가 되어도 들어오질 않네...!

가로막힌 철조망이 철천지한 원수로다  
 나의조국 잘린허리 어느누가 이을손가  
 다박머리 백발되어 수족마저 떨리는데  
 라이트윙 레프트윙 골육상쟁 끝이없네  
 마주보고 겨눈총은 우리형제 쏠것인가  
 바쳐올린 소지종이 두손모아 비나이다  
 사랑하는 우리부모 그언제나 만날손가  
 아버님전 어머님전 무병장수 기원하며  
 자나깨나 고향생각 흘린눈물 강이되네  
 차곡차곡 쌓인한을 어찌이루 말할손가  
 카아키색 군복입고 북녘땅을 바라보니  
 타고타는 이가슴은 솟검정이 다되었네  
 파괴주의 걷어내고 이민족이 화합하여  
 하루속히 통일하고 남북한이 단결하세

주해 : 라이트윙(right-wing : 우익(右翼))  
 레프트윙(left-wing : 좌익(左翼))  
 카아키색(Khaki-색 : 군복색의 일종)

가슴에 맺혀있던 이 아픈 기억들을

나 이제는 모두 잊으리라! 제아무리

다독거리며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라일락 꽃이며 장미꽃 한 아름 받아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어찌 풀릴 것인가..?

바라보는 눈길마저 싸늘한데 그 어찌

사랑을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을손가.?

아서라! 말어라! 그 사랑을 잊으리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대 눈길마저

차갑게 느껴지는데, 내 가슴이 저 넓은

카리브 해(海)처럼 감싸안을 수가 없어라!

타오르는 열정이 끓어넘쳐도 앞을 가로막는

파도가 밀려오니 더 없이 야속할 뿐이구나!

하늘에 떠있는 조각구름 이 마음을 알려나?

가증스러운 원님네들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서를 하고  
다짐에 다짐을 하더니만 고작 의사당 안에서  
라스트-라운드(last-round)에 임하는 권투선수처럼  
마구 휘두르는 주먹과 레슬링 선수처럼 뒤엎켜  
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 정말 불성  
사나운 모습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광경은, 착하게  
자라야 할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카인의 후예처럼 국민들에게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타락의 늪으로 빠져버린 원님네들! 제발! 서민들을  
파악하시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어  
하나라밖에 없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소서...!

**개**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여 어지럽구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길

**래** , 한 말씀 올리며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합니다 !

**매**사에 신중하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불신과 증오가 가중되고 있으니, 어찌하여

**새**해가 밝아올 이 연말에 국민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애**끓는 절규로 메아리치네....!

**재**신임이다! 탄핵 이대! 논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채**워져야 할 서민들의 고충은 송두리채

**개**버리고 오류를 범하는 원님네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속을

**태**우지 마시고 올바른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패**가 안 좋다고 고스톱 판을 뒤집어 엮는 것은 결코

**해**법(解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이까...?



**가**로막힌 철조망은 반세기가 넘었는데, 그대로 있고  
**나**이는 한 살. 두 살, 먹다보니,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어찌하여 통일은 안 오는가..?  
**라**이타 불에 애꿎은 담배만 태우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북녘땅만  
**바**라보니, 그 옛날 손가락 걸며 귤전에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님은 이제는  
**아**마도 호호백발(皓皓白髮)이 다 되었겠구나..!  
**자**작(自酌)해서 따르는 술잔에 흐느낌만 더하고  
**차**오르는 술잔에 슬픔만 쌓이는 구나....!  
**카**메라-폰(camera-phone)동영상에 북녘땅을 담아봐도  
**타**동네에 들어온 느낌처럼 온몸이 절규(絶叫)하듯  
**파**르르~ 떨리는 전율(戰慄)만 느껴지는 구나....!  
**하**늘이시여...! 이 민족(民族)을 보호(保護)하소서...!

**감**추고 덮는다고 냄새가 안나는 줄 알지만

**남**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밀에 숨겨놓고 이 민족의 혼을 팔아먹은

**람**욕(濫慾)의 흥계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맘**대로 휘두른 칼자루가 얼마나 많은 이 민족을

**밤**중에 끌어다가 죽였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오!

**암**울했던 과거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여

**잠**들지 못한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고

**참**과 거짓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느님께서서

**깜**깜한 어둠속에서도 가리실 것이니

**탐**욕의 무리들아! 정신을 차리거라!

**팜**플렛(pamphlet)에 적혀 있는 그 진리를 모르고

**함**부로 역사를 왜곡하지 말지어다!

거부할 것이 따로 있지? 그래.

너무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난 북한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어찌하여

러시아도 아닌 지척에서 육로로 가면

머지 않아 도착할 구호물품들이 배로 간다니?

버려야 할 주체사상인지? 원지? 때문에

스러운 북한의 이재민만 고통 뿐이로구나!

어찌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처절하게 절규하는 부상자들의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위정자들은 가슴을

터 놓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퍼주려고 하는 구호의 손길을 절대로

허튼 수작으로 인해 이 민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거**들떠 보기조차 싫은

**너**무 미웁기만 했던 그 사람을

**더** 이상 찾지 않으리라고 맹서했건만, 그래도

**러**브 신(love scene)을 연출했던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네.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변치말자고 한 그 약속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사랑이 야속하구나..!

**서**운한 마음과 괴로운 시련을 잊으려고

**어**제밤에도 술에 취했지만 소용이 없구나...!

**저** 소나무는 늘 변함없이 푸르는데 , 인간의

**처**신은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단 말인가...?

**커**다란 꿈을 갖고 출발했는데, 마치

**터**져버린 풍선처럼 쓸모가 없구나...!

**퍼**담았던 그 고귀한 사랑의 열매가 모두

**허**울 좋은 하늘타리였던 말인가.?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즐겁듯이

**니**가 즐겁고 행복할 때 조심하거라...!

**디**프레션(depression)현상이 있다고 하여

**리**더(leader)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저버린다면

**미**움을 사기 꼭 알맞을 것이다.

**비**리와 반목이 심화되면 언제나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치**사한 행동과 실없는 말은 침몰하는 배의

**키**(key)를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니래!

**티**격태격하며 친구들과도 싸우지 말고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여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듯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가늠자 구멍으로 적진을 노려보며

나라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행군일세!

다리도 아프고 고단한 몸을 한 통의

라일락 꽃 향기 품은 위문 편지로 달래며

마음 속에 그리는 부모 형제 생각 뿐이로구나!

바빠지기 시작하는 농사철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이웃 집 순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나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

자꾸만 떠오르는 네 모습에 잠을 이루지 못하네...!

차분한 성격에 경음악을 유난히 좋아하던 그녀는

카세트 틀어놓고 발장단을 맞추던 모습이 선 하구나.

타조처럼 목이 훌쩍 패인 그녀는

파마 머리를 즐겨하고 속 눈썹이 길었지요.

하루 빨리 제대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싶구나..!

**가**래침을 길에다 함부로 뽏고, 휴지도 버리고

**나** 자신만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고

**라**이타도 쓰다가 불이 안켜진다고 남의 집

**마**당이든 길에든 획 집어던지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카**아드 섹션(card-section)도 손이 맞아야 아름답게 보이듯

**타**버린 산림과 더럽혀진 도로와

**파**헤쳐진 산하(山河)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하**천에 고기도 못살고, 결국 우리 인간도 못살게 될 것이오..!





**깨** 물어 주고 싶도록 귀엽고 귀여운

**내** 손주 녀석이 말썽을 좀 부렸다고

**때** 린다면 과연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래** 방(來訪)하는 분에게 아들 며느리의 흥을

**매** 일 같이 본다면 집안이 편안할까요?

**배** 어난 미모에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도

**새** 빨간 거짓말을 한다면 어른은 물론이고

**애** 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싫어할 것입니다.

**째** 지는 듯한 목소리로 언성(言聲)을 높여

**채** 신머리 없이 행동하는 나쁜 습관은 빨리

**개** 버리는 것이 집안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태** 평성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패** 덕(悖德)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며 절대로

**해**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첩이 나타났다고 공작정치를 일삼으며  
**난**리법석을 떨고 온 국민들을 속이더니  
**단**지 정권을 쥐기 위한 수단이었다  
**란**, 사실을 알았을 때 온 나라의  
**만** 백성들의 허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반**공을 외치면서 사기를 치고 착취하더니  
**산**업경제 발전을 빙자하여 약자를 유린하고  
**안**다고 하는 배운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잔**인하게 유린한 인권을 보상은 커녕  
**찬**밥신세를 만들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구나!  
**칸**칸이 들어 찬 그 속은 새까맣게  
**탄** 숯덩이가 다 되었구나!  
**판**사가 도장을 찍어 정본이라고 해 놓고서  
**한**심한 인간들이 아니라고 우기는 구나!

**가**족들과 헤어진지 어언 50 년 세월이 지났어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형제 생사조차 모르고

**다** 늙어 죽어 가는데, 어찌하면 종단 말이나..?

**라**고, 물어봐도 소용 없고 불러도 대답없네.....!!

**마**주 겨눈 총뿌리는 다른사람 아닌

**바**로 우리형제 가슴인데, 어찌다가? 어찌다가?

**사**랑하는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눈단 말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주 평화통일을 못이루고 헤메는 이 민족이

**차**단된 저 철조망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는구나!

**카**세트 테잎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처럼

**타**향살이 몇 몇 해인가? 손꼽아 헤여보다가

**파**뿌리가 된 머리를 메만지며 부르짖기를

**하**늘도 무심한 세상! 저승에서나 부모형제를 만나보려나...?

**거**품이 많이 나는 세재를 가정에서나 단체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맙시다..! 한 번

**더**럽혀진 수질은 정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러**시아든 우리나라든 오염원을 줄여야 하지요..!

**머**리를 감을 때에도 샴푸(shampoo)와 같은 세재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서**서히 고기도 살 수 없게 되어 가고

**어**쩌면 이대로 계속 오염시키면 사람도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어요..!

**처**참한 자연의 재앙을 맞아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 모두 삶의

**터**전인 이 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시다.....!

**퍼**서 쓸 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

**허**드레 물 이라도 제발 아껴쓰시기 바랍니다..!!!!

**갈**앞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산자락에는

**날**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데, 그 옛날

**달**구지를 타고서 덜커덩거리는 길을

**랄**라~ 랄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고뻘을 잡고 말을 몰던 마부가 생각나네..!

**발**달하는 문명에 밀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실에 묻혀 그 옛날의 정취를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음이 아쉽기만 하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찰**거머리 한테 물려가며 모내기하던 시절

**칼**국수에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던 모습은

**탈**바꿈 되어 찾아볼 수 없구나.....!

**팔**짱을 끼고 서서 모내기를 하는 이양기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아버지의 불쌍한 생각이 떠오르네..!

**고**작해야 백년도 못사는 인생이라고

**노**젓는 뱃사공이 하던 말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지요...!

**로**울링(rolling)이 심한 뱃전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모**호(模糊)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한 여인이

**보**따리를 끌어 안으며 무슨 말인가? 하고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요...!

**오**월의 산자락은 저리도 푸르는데

**조**석(朝夕)이 다르게 힘에 부쳐 노젓기도 못 하겠네!

**초**목은 계절따라 잎이 피고 지는데, 이 몸은

**코**흘리게 어린시절로 되돌릴 수 없으니.....!

**토**해내는 뱃사공의 인생사가 이제서 조금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날마다 젊다고

**호**연장담하며 늑은이 보고 비웃지 말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보면  
**너**무 안스러운 생각이 들지않나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그렇게  
**러**시아워(rush-hour)때라고 하여 노약자 보호석에  
**머**리를 기웃거리며 앉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조금  
**서**서 있기가 싫다고 자리를 잡고 앉아 버렸지요...  
**어**찌다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꾸부리고  
**저**쪽에서 나타나면 자는 척 눈을 감 으니...  
**처** 죽일 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커**다란 목소리로 나무랄 수도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의협심만 전율을 느끼며 온몸으로  
**퍼**져 혈압이 올라가는 구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다!

가꾸고 정성을 다 들여 키운

나무는 곧게 자라며 쓸모가 있지만

다치고 상처가 난 나무는

라선형으로 꺾이고 비뚤어지며 자라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려서 부터 도덕적이고 예의를 지키고

자라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분명하게

차별(差別)하여 좋은 사고(思考)를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카네이션 꽃 향기를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타(他)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파수(把守)꾼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가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길 기원합니다!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청계천 길 옆에

**노**점상들이며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도**로가 파뒤집어지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로**맨스(romance) 같은 그 옛날의 정취와 애환이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네.....!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이며 문화재 급(級) 유물들이 나오는데

**소**멸시켜 버리자니 아깝고, 그대로 보존하자니

**오**비작거리며 공사가 엉망이 되고,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충분한 분석과 계획이 없이 그저

**코** 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토**담을 허물어 버렸으니 어찌할꼬...?

**포**(包)가 포를 먹어도 훈수(訓手)를 둘 수 없고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일까?

**길**잡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은 표류하고 있으니

**닐** 어느 분야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딜**레마(dilemma)에 빠진 듯한 심경으로

**릴**라이프(relief) 를 기다릴 수도 없고

**밀**고 당기는 투쟁만 하고 있으니...

**빌**어먹을 놈의 세상! 있는 사람들은 행복에 취하고

**실**업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3D 업종처럼

**질**이 낮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칠**전팔기(七顛八起)의 끈질김도 없고, 의지도 약하여 마치

**킬**러(killer)를 뿌려 혼비백산하는 파리같은

**틸**내는 모습이 아쉽기만 하구나.

**필**요한 인력이 중소기업에는 오질 않아 외국인들이

**힐**끔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고 일을 한답니다.

닐 : '니를' 의 준말로 씀.

딜레마(dilemma) : 진퇴양란. 곤경. 궁지에 몰린.

릴라이프(relief) : 안도. 안심.

킬러(killer) : 모기약의 일종

틸 : ' 티를 '의 준말로 씀

**구**석기 축제가 열리는 연천군 전곡리에

**누**구든지 오시면 선사 유적지를

**두**루 관람(觀覽)하실 수 있습니다....!

**루**수(漏水)가 되는 움집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무**척 의미있는 고대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부**담없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수** 없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축제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셔서

**추**측만 했던 옛날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온

**쿠**웨이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투**석(投石)하여 돌칼을 만드는 구석기인의 모습을

**푸**짐하게 구경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요. 정말

**후**회없는 여행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敵)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 중요하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라**이타 불만 불이라고 하고, 성냥 불은 부정하며

**마**음의 담을 쌓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야 보배가 되듯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와 부정을 저지르고

**아**무런 탈 없이 천당엘 가겠다고 한다면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차**제(此際)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자신이

**카**리스마(Charisma)적인 성공을 바라고 원하면서

**타**인의 인격과 인권은 유린해도 된다는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獲罪於天 無所導也)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느니라!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민족들도 하루속히 남북통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123sis>

공 천심사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농 성을 하며 시끄럽게

동 네가 떠나갈 정도로 떠들던 모습에

롱 아(龍兒)들이 다 웃을 일이었지요..!

몽 몽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혼돈속에서 마치

봉 사가 아기 낳아 주무르듯, 분간할 수 없는

송 사(訟事)는 계속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웅 세미 없는 팻죽처럼 도대체 맛이 있어야 할

종 갓집 음식이 왜? 이 모양일까?

총 선(總選)도 끝났고, 이제는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지..

콩 으로 메주를 쏜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통 믿을 수가 없는 정치는..... 이제는 그만

풍 당! 깊은 물속에다 던져버리시구려..!

홍 두깨 찜질을 국민들로 부터 당하지 않으려면 말시오,,,,!

**각**(角)이 지고, 모(矛)가 ;난 돌이 정(釘)맞는다고

**낙**제점수를 면치 못하면 무리에서 이탈하여

**닥**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느니라....!

**락**(樂)이 있어야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목표도 없이

**막**가는 세상이라고 아무렇게나 살다보면, 마치

**박**자와 음정이 맞지 않는 노래와 같으니라...!

**삭**막하고 무질서한 세상이라고 마음을

**악**하게 먹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타산적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 주길 바란다! 그러면

**카**테일 파티(cocktail-party)가 열리는 축제의 마을로 만들어질 것이니

**탁**상공론으로 대처하지 말고 근력이 하나도 없는

**팍**삭 늙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기를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넌** 잘 알고 있으리라! 덤다고 이불을

**던**지듯 발로 차버리고, 맨바닥에서

**런**닝셔츠(running shirt) 바람으로 자게 되면 병이 난단다.

**먼**지가 많은 방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진드기가

**번**져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여름철에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이면, 미세 먼지속에

**언**제나 바이러스(virus)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안에

**전**염되므 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바란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네 몸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control)하여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턴**테이블(turntable) 뒤쪽에는 물론이고 방안 구석구석을 닦고

**펀**치(punch)구멍에서 나온 종이도 후~ 하고 불어버리지 말고

**헌**책도 책꽂이에서 자주 옮겨 먼지를 털어내기 바란다.

**까**닭도 없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도 그저

**나** 자신이 참아야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짓궂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라**이프 생음악을 들으면서 착잡한

**마**음을 달랬지요! 괴롭다고 좌절에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은, 결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짜**증스러운 놀림이 계속되어도 시달림을 당해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아도 어금니를 짹 물고

**카**바이드(carbide)가 물속에서 부글부글 끓듯이 속이

**타**들어가도 참으리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은

**파**도와 같은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지(陰地)가

**하**늘의 우주(宇宙)를 움직여서 양지(陽地)가 됨을 깨달았음이니라..!



**가**다가 못가면 여럿이 모여서 쉬어 가리라..!

**나**무토막이 들어오면 들어 올리리라...!

**다**리가 막히면 넘어가거나 돌아가리라...!

**라**디에이터(radiator 방열기)속에서도, 남비 속에서도

**마**냥모를 내는 논에서도, 필요한 존재인데

**바**보같은 사람들은 때로는 비참하게 나를 내버리고

**사**정없이 오염시키고 있어도, 나쁘다고 불평도 하지 않으리라!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나를 언젠가 쓸 수 없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숨이

**차**고, 피부가 상하고, 먹을 래야 먹을 수 없는

**카**드뎀(cadmium)이 검출되는데도 방치하고 있으니 어찌하랴?

**타**박만 하고 더럽다고 침 뱉지 말고

**파**멸을 초래하기 전에 그만 오염시키고

**하**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살아가라고 부탁하노라.....!!!

**고**물수집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근력이 없어 그 마저도 할 수 없게 된

**로**심(老心)을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통 알 수가 없고 가끔씩이라도 들려서

**보**살펴야 할텐데..... 어찌 된 일인지 몇 달이 지나도

**소**식조차 없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오**죽하면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이 일어나니....

**조**석으로 문안인사를 드리고 살아왔던 그 옛날!

**초**가지붕이 웅기종기 모여 있던 그 시절이 그리기만 하구나!

**코**앞에 닥친 이 나라의 노인문제를 조속히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포**동포동한 손주녀석 엉덩이를 투덕거리고

**호**주머니에서 싹짓돈 꺼내 과자를 사주었으면 좋겠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있지만  
나날이 기온이 올라가, 뜨거운 햇살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곡식들 한테는 도움이 되지요.  
라면같이 뜨거운 음식보다 냉면을 좋아 하지만  
마냥 더웁다고 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바람이 일어나는 부채를 들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는 이롭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라는 농작물이 쑥쑥 클 수 있도록 뜨거운 햇빛을  
차분하게 받아 들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일하는데  
카세트를 돌려메고 시냇가 나무그늘에서 풍악을 울리면  
타서 그을린 검은 농부의 얼굴은 인상을 찌푸리게 되지요!  
파고 또 파도 끝이 없는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하늘 아래 큰 근본이 되는 농자(農者)의 마음을 아십시오!

**개**울가에 수양버들이 바람에 하늘거리던

**내** 고향 산천은 얼마나 변했을까?

**대**문 밖 텃밭 옆에 앉아 흠장난을 하던 생각에

**래**일(來日 :한문투의 표현) 밤 자고 나면 모내기 한다고, 김치를

**매**콤하게 담그시던 어머니의 손이 생각나네....!

**배**고프고 허기지던 보릿고개를 겪던 그 시절!

**새**참에 보리개떡이라도 만들어서 김치에 내갈려고

**애**태우시던 그 심정을 어느 누가 알리오....!

**재**잘거리며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어린 시절

**채**버무리지도 않은 그 김치 그릇에다 썩을 뜯고 잡초를

**개**서 갖다 넣고 김치를 한다고, 어머니 속을

**태**워드렸던 그 때, 그 모습이 떠오르네....!

**패**일대로 패인 어머니의 그 깊었던 시름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련하고 불쌍하게만 느껴지는구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아무도 없이

**노**인 혼자 살아 간다면? 이것은 정말

**도**저히 외로워서 못살 것입니다....!

**로**스구이 삼겹살을 먹어도 맛이 없고

**모**과주(酒)에 진수성찬이 무슨 맛이 있으리오..?

**보**물이 가득 있어도, 재산이 많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오! 세상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가

**오**늘과 같이 핵가족화 되어가다 보니, 이제는

**조**상을 모르고, 형제를 모르고, 이웃을 모르는

**초**승달 같은 어두운 현실이 되었구나...!

**코**흘리게 손주녀석과 조부모(祖父母)가 오순도순

**토**끼같이 귀여운 정을 나누는 대가족 제도가 부활 되어야

**포**화상태에 놓인 이 나라의 노인문제를

**호**탕(浩蕩)하게 해결하는 사랑의 비결이 될 것이오..!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할 자식의 흥, 허물을

**남**에게 흥을 보고 자식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담**이 아무리 튼튼하여도 쇠망치로 여러번 치면

**람**파(藍破)되어 무너지고 말지요..! 아무리

**맘**속에 고부갈등이 심하다고 하여도, 갑자기

**밤**에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면, 그래도

**삼**.,사촌 보다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딸이

**암**만 미운 짓을 했어도 먼저 달려 오지요..!

**잠**시 의견이 맞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다보면 미운 짓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이요.

**깜**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정을 쏟아주면

**탐**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니....

**팜**플렛(Pamphlet )에 있는 귀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공경할 것이오....!

**함**부로 자식의 흥,허물을 들추지 마시구려..!

고문에 못이겨 죽어간 영령들이여...!

노천(露天)에 어딘가에 묻혀 있을 영혼들이여...!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지도 못한채 매맞아 죽어

로상(路上 : 한문투의 표현)에 쓰러졌던 시신들이여!

모두가 식민지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쓰러져간 사람들은

보통사람인 평범한 국민과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소와 돼지 몰듯 총검으로 같은 민족의 가슴을 도려냈던

오욕의 그 처참한 비극적인 역사를 아십니까?

조국의 허리가 잘리는 아픔을 당하고도 모자라 국민을

초주검이 되게 몰아갔던 그 자리에선 다리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며 쓰러지는 사람과 선지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그 처절한 절규를 이제 와서

포상을 한들 그 유가족의 슬픔이 아물 리가 있을까요?

호국영령들의 진상을 꼭 밝혀야 영세시령(永世是寧)할 것이오!

**강**하면 부러진다고 했거늘, 오기를 부리다가

**낭**패와 엄청나게 커다란 실패를

**당**하기 십상이니,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야

**랑**자(娘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오!

**망**발(妄發)을 늘어놓고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방**탕(放蕩)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구려!

**앙**심(愀心)을 품고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경거망동하자 말고

**장**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세인(世人)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강**가루도 조심하지 않으면 배주머니 속에 새끼를

**탕**! 하는 총소리에 놀라 떨어뜨릴 수 있으니....

**팡**파아르(fannfare)를 울리며 예쁘고 귀여운 여자와 결혼하려면

**항**상 성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오!

**랑**자(娘子 : 음운 법칙에 따라 씀)



**가**방에 금바퀴가 달려 들어오는데

**나**라가 어찌 어지럽지 않으리오....?

**다**칠대로 다친 인간들의 욕심이, 마치 음악의

**라**피다멘트(rapidamente)처럼 확산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바**퀴에다 검은 색칠을 하였다고 모를 줄 알고 있지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기계는

**아**마도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자**본주의 경제는 그렇게 힘 안들이고 돈을 벌어

**차**익(差益)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걸고

**카**라비이너(karabiner)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타**이어(tire)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어찌 할꼬..?

**파**인애플(pineapple)속에 혹시 금궤가 들었는지 모르니

**하**역(荷役)되는 모든 수출,입 물품을 살살이 뒤져야 할 것이다..!

**라**피다멘트(rapidamente) : [명사] 〈음악〉 악보에서, 빠르게 연주하라는 말.

**카**라비이너(karabiner) : [명사] 카라비너(암벽 등반가들이 쓰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타**이어(tire) : [명사] 1.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주로 고무로 만들며

안쪽에 압축 공기를 채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2 . 철도 차량의 바퀴에 끼우는 강철로 만든 테.

**파**인애플(pineapple) : [명사] 1 . 〈식물〉 파인애플과의 상록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칼 모양이다. 여름에 잎 사이에서 술방울 모양의 자주색 꽃이 피고, 열매는 초겨울에

누런빛을 띤 붉은색으로 익는다. 잎은 피륙이나 종이의 원료로 쓰고 열매는 식용한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분포한다. [비슷한 말] 봉리수. (Ananas comosus)

2 . ‘1’ 의 열매. 향기가 좋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힘이 있다. 생식하거나 통조림, 주스를 만든다.

[비슷한 말] 봉리2(鳳梨).

**고**인(故人)이 되어 돌아온 시신을 앞에 놓고 국민들이  
**노**(怒)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어찌하여  
**도**깨비 놀음만 하고 있는가? 그 고인의 계모는 마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양 날뛰다고 하는데  
**모**양 사납기 그지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언론의  
**보**도진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일이며  
**오**늘의 이 기막힌 사건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초**당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는 식으로  
**코** 앞에 이익만을 쫓아 무작위로 마치  
**토**막극을 펼치듯 줄거리만 대강 알리지 말고  
**포**락지형((火包)烙之刑)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게  
**호**부(好否)를 가려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계절에는

**노**면(路面)에서 올라오는 후텁지근한 열기로 인해

**도**로상에 정차시에는 창문을 열 수조차 없지요!

**로**비(lobby)와 대형 건물의 사무실처럼 에어컨(air-con)을 틀면

**모**공(毛空)에서 흐르는 땀을 걷어 줄텐데....!

**보**나마나 두어 달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는

**소**매가 짧은 반팔을 입고 다니면 서늘할텐데....

**오**만상을 찡그리며 덥다고 짜증을 내며 정지 신호등인데

**조**급한 마음에 앞차 보고 빨리 가라고 뽕뽕거린다면

**초**등학생이 다 웃을 일이지요! 오뉴월 복지경(伏之傾)에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맛있게

**토**종닭을 꼭 삶아서 땀을 줄~ 줄~ 흘리며, 양손으로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닭다리를 잡고 먹는 마음으로

**호**전반응을 일으켜 한소나기 죽~ 죽~ 내렸으면 좋겠오..!

**깍**쟁이처럼 행동하고 남에게 쌀쌀맞다고

**낙**인찍힌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딱**지맞기 일쑤가 되기 십상이지요!

**락**스냄새가 싫다고 청소를 안하면 쓰레기가

**막**혀 하수도 물이 내려가지 않고, 찌든 오물은

**뽁뽁** 문질러서 닦아도 잘 안지워지는 것처럼

**쌉**쌉하고 인정이 넘치는 행동을 하며,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에 목말라 하며

**짹**짹은 외기러기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맛있는

**칵**테일(cocktail)이 기다리지만 불성실하게

**탁**자에다 놀음판이나 술판으로 허송세월보내면

**팍**삭 늙은 뒤에 아무리 후회를 하여도

**학**발(鶴髮)이 흑발(黑髮)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구경시켜준다고 껴이는 바람에 내맘대로  
누가 볼새라 몰래 집을 나왔는데, 이렇게  
두견새처럼 홀로 앉아 외로움에 흐느끼며  
루안(淚眼)을 두 손으로 닦게 될줄은 미처 몰랐지요!  
무던히도 참고 견디며 살아볼려고 애를 썼건만  
부서지는 파도가 이 마음을 알아줄리 없고  
수 많은 백사장에 모래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구나!  
우물안 개구리가 세상밖이 넓은 줄 모르듯이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고개들어 창밖으로  
추녀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만 바라보던 몸이  
쿠웨이트 여행가자는 말에 속아 따라나섰다가  
투망에 걸린 고기 신세가 될줄이야 누가 알았나?  
푸른 바닷물 위에 날개짓을 하는 저 갈매기야  
후벼파내는 듯한 이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려무나!

**고**군분투(孤軍奮鬪)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도**독질만 빼놓고 할 수 있는데까지 열심히 사십시오!

**로**또복권이나 사러 다니며 일확천금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지 말고 힘들어서 일을 하십시오!

**보**람있고 뜻있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봉사하십시오!

**오**즘, 똥을 받아낼 정도로 자신이 늙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조**력자(助力者)가 주변에서 대기한다면, 절대로

**초**취한 모습으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를 틀어막고라도 부모님을 봉양하십시오! 그러면

**토**끼같은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포**대기에 자식을 업고서 부모님을 홀대하면, 이후에

**호**되게 자식들한테 외면을 당할 것이니 명심하십시오!

**가**짜와 불량식품이 판을 치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아실거예요.....!

**라**벨(label : 상표)의 가치는 곧, 국가의 가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심을

**바**르게 갖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아**주 먼 외국에서도 제품의 라벨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 시킵시다!

**카**세트(cassette)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타**국의 그 어떤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보니, 이마에 주름살이

**다** 생기는구나.....! 세월은 그렇게 마치

**라**이너(liner)성 타구(打球)가 날아가듯 흘러갔는데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인 것을..... 어찌하랴...?

**바**로 코 앞이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네 인생사가 그토록 부질없는 못내

**아**쉬움만 남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만심에 빠져 모래시계가 흘러내려

**차**올라 오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으니.....

**카**바레(cabaret : 프랑스 어)의 향연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타**박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부패, 부정만 저질렀으니

**파**랑(波浪)주의보가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오....!

**하**다 못해 남은 시간만이라도 선(善)하게 살아야 한다.

**갈**고 닦은 기량은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전문성을 지니게 되며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고 노력한 결과를 얻게 되어 정상에 서지만

**랄**라리(날라리의 음운 법칙)같이 힘들다고 땀을 흘리지 않고

**말**만을 앞세우면 절대로 앞으로 한 발자욱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니라..! 인간의 세상만사가

**살**아가노라면 쉽고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기보다

**찰**거머리처럼 악착같이 달려들어 남자가 한번 뜻을 세우고

**칼**을 들었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할 것이다....!

**탈**출에 성공한 뺑뺑옹처럼 끈질기게 노력하면

**팔**자타령, 사주타령, 핑계가 필요없는 정상에서

**할**명(割名)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어찌

**느**긋한 마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드**센 세상풍파를 만난 사람이 어찌

**르**네상스의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므**슨(무슨의 고어) 말로도 달래줄 수 없는 그녀는

**브**레지어 끈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울고 있네....!

**스**물여덟 이팔청춘 다 흘러 보내고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을 하여 이루어질만 할

**즈**음이면 꼭 무슨 일이 생겨 발목을 잡는 것이

**츠**기너기는 생각만 드는구나....!

**크**레임(claim)이 간 인생열차 속에서 서로를

**트**집을 잡고 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프**리마 돈나(prima donna 제1의 가수)의 아름다운 자태도 헐뜯어서

**흐**트러뜨리면 보기 흉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구려....!

주해(註解)

르네상스[Renaissance] : (14~16세기 유럽의) 문예 부흥기[르네상스].

[the ~] 문예 부흥(기), 르네상스 ((14~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예 부흥))

브레지어[brassiere] : 앞가슴 맵시를 내기 위한 것.

모양도 시대의 유행에 따라 바뀌고 디자인도 위에 입는 옷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소재는 면·나일론·레이온을 비롯 폴리우레탄 계통의 탄성 섬유인 스판덱스가 많고 장식으로 레이스를 달거나 자수를 놓는다.

츠기 : [부사] [옛말] ‘측은히(가엾고 불쌍하게)’의 옛말. 츠기너기지 말라 : 측은히 여기지 말라.

크레임[claim] : [동사] (자기 권리나 재산이라고 여겨) 요구[요청]하다 , [명사] 주장

(정부나 회사에 보상금 등을) 청구[신청]하다. [타동사][VN](관심을) 끌다[사로잡다].

얻다, 차지하다. (목숨을) 앗아 가다. (보상금 등에 대한) 청구[신청].

프리마돈나[prima donna] : 제1의 여인' 이라는 뜻으로, 오페라의 여주인공역을 맡은 소프라노 가수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남자 가수를 '프리모 우오모' 라 한다.2.(못마땅함)자기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잘난] 줄 아는 사람.

구름에 달 가듯이 세월은 잘도 가는데

누가 이 사람의 심경을 헤아려 줄까요..?

두견새는 밤새도록 슬프게 우는데

루마니아 고향에는 언제나 가려나.?

무엇을 찾아 이곳에 멀리 떠나 와서 가슴을

부여잡고 외로움에 이렇게 울고 있나?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보고 싶은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 주소서..!

주름진 그 얼굴을 머리속에 그리며

추야장장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아...!

쿠웨이트로 돈 벌러 간 오라버니는 그동안

투우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푸대접을 받으며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결코

후회하지 말고 우리 집안을 일으킵시다!

**고**찰(古刹)이 들어선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안개가 자욱한데  
**노**승(老僧)은 예불(禮佛)을 올리며 목탁소리 은은하게  
**도**(道)를 닦는 모습이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구나.....!  
**로**송(老松) 밑에 다람쥐가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모**과나무 위에 솔개가 앉아 지켜보는구나.....!  
**보**살(菩薩)할미처럼 지켜보는 솔개의 위용(威容)때문에  
**소**리를 죽이고 꿈쩍도 못하는 다람쥐 모습이 안스럽구나..!  
**오**금을 펴지 못하는 약자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스러운 생각이 들지만 도와줄 수 없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코**앞에 펼쳐진 저 환경과 같은 것을.....!  
**토**우스트(toast)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메마른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상생(相生)의 부드러운 마음이  
**호**시절(好時節)을 만들어 주기를 합장(合掌)하고 비나이다...!

**걸**려 넘어진 돌뿌리를 차 봐야 자신의 발만 아프고

**널**어놓은 빨래를 비가 내리는데도 방 안에서

**덜** 말랐다고 건지 않으면 또 빨아야 하는 것을.....

**럴**렐렐~거리며 세상풍자나 해보자꾸나!

**멀**어버린 눈을 가진 소경이 개천을 나무라면 무엇하고

**벌**통을 건드려 벌한테 쏘인 것은 당연지사인데...

**설**익은 과일을 따서 먹어봤댔자 도로 뺄어낼걸...

**얼**마가 되었건 간에 단돈 한 푼이라도 부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알텐데, 왜?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애들같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컬**컬한 막걸리 한 대접 드리고 세상근심을 툭툭

**틸**어버리자꾸나..! 그렇게 덩다고 아우성치다가

**펼**~펼~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춥다고 발광을 떨며

**힐**어버린 벽을 고치느라 법석을 떨겠구나.....!

간도 땅도 이 민족의 영토인데 어쩌다가  
난데없이 강대국들이 뺏어버리고 말았으니  
단일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왜곡하려 드는구나!  
란중(亂中)에 찢기고 훼손된 그 유물들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이 나라의 우수한  
반만년 역사를, 아니, 구석기 시대 이전부터  
산하(山河)를 누비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얼을  
안다면 더 이상 도굴하여 그 증거와  
잔재(殘在)를 없애지 말거라.1  
찬란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숨결이  
칸칸이 살아 숨쉬고 있는듯 벽화가 남아있는데  
탄탄하고 우와한 그 자태를 오염시켜  
판독을 어렵게 하지 말거라..!  
한민족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거라.!!!



구태의연한 원님네들의 회기(會期)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누구나 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두서없는 질의응답(質疑應答)하며, 당선만 시켜주면  
루수(漏水)되는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겠다고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부정(否定)도 긍정(肯定)도 아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는 것 같고 선량한 국민들을 마치  
우롱하는 것 같아 웬지 마음이 착잡하구나....!  
주소없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서도  
추녀 밑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본들 소용없고  
쿠린내(구린내의 사투리로 씀)만 풍기는 것이 뉘집 개가 똥을 썼는지?  
투표를 해도 별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푸닥거리라도 해야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의 속이  
후련하게 씻겨 내려갈런지 모르겠오...?

**군** 식구처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눈**치밥을 얻어먹어야 했던 어느 날!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쓰러졌지요..!

**룬**자(字)를 거꾸로 보면 골자(字)가 되는 것도 모르고

**문**전박대를 당하던 서러운 시절이 자꾸만

**분**한 감정으로 떠오르는구나.....!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모진

**운**명의 장난 같은 바람이 불었을까? 마치

**준**설(淙淙)하지 않은 하수도가 역류(逆流)하듯 가슴을 치밀고 있네..!

**춘**향이는 수모를 당해도 이 도령을 만날 희망이 있었는데 반해

**쿤**타킨테 라는 외국 동화속에 인물도 아닌, 쓸모 없는

**툰**자(字)같은 인생이 서러움만 더해도 참고

**푼**푼이 버는 대로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아왔는데

**훈**제(燠製) 칠면조 다리는 커녕 집도 없이 쫓겨날 지경이 되었구나..!

**고**리대금 업을 하는 회사와 사채업자들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를 빨고 있으며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가진자들의 횡포이다!

**로**맨스같은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모**질게 다가오는 욕설과 헐박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네!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한 가장(家長)이

**오**죽하면 세상을 버리고 막다른 길을 택하였을까?

**조**용히 어느 날 한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며

**초**로인생(草露人生)이 한많은 이 세상을 저주하며

**코**앞에 펼쳐진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로 투신하고

**토**끼같은 자식과 여우같은 마누라에게 통한의 유서로

**포**용할 수 없는 이 사회를 비판하고자 한다...!

**호**소합니다! 부익 부 빈익 빈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게 하소서!

**고**초 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만큼 더 매우랴?

**노**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그 옛날 이야기가

**도**저히 참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에 마치

**로**데오(rodeo)를 타고 난 후 휘둘린 사람처럼 몽롱하네..!

**모**진 목숨 끊을 수 없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한낫

**소**용없는 생각이고, 죽어도 그 집 귀신 되라고

**오**동나무 밑에서 다짐을 하셨던 친정 어머니 생각에

**조**리질을 하면서 부엌에서 눈물 지으셨다는군요....!

**초**가지봉에다 속을 썩이고 말을 안듣는

**코**흘리게 어린 신랑을 집어 던졌는데, 신랑이

**토**라져서 울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다 보니

**포**근하게 지붕위에 열린 박을 끌어 안고 어머니께

**호**박을 큰 것을 딸까요? 작은 것을 딸까요? 하더라나요..!

갱생원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댕기머리, 상투머리 잘릴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랭킹(ranking) 1 위를 자부하며 세계를 쥐고 흔들려고

맹공격을 일삼는 패권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뱅글뱅글 지구가 돌다보면 알게 될 것이오..!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아릿다운 그 고운

앵두같은 그 입술이 핏빛으로 물들어 슬픈 울음소리가

쟁하게 귓전에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챙도 없는 추녀 밑에서 들이치는 비를 맞고

캥캥거리며 재채기를 하는 강아지 꼴이 되었으니....

탱자 맛인지? 개살구 맛인지? 통 분간이 안되고

팽창하는 풍선이 한계를 넘게되면 터진다는 것을

행여라도 안다면? 그만 불거라..! 그만 넣거라...!

**고**객을 위하는양 왕으로 대접한다

**노**랑이 습관처럼 이익만 챙기누나..!

**도**둑이 따로있나 남의것 빼앗으면

**로**선을 잃어버린 엉뚱한 정책으로

**모**르는 고객들은 당하기 일수이니

**보**배와 같은고객 대접을 하겠다고

**소**리만 크게나는 그릇이 속이비어

**오**리발 내밀고서 있는것 없다하네

**조**금전 닭을잡아 오리발 내미는데

**초**심에 사기성을 갖고서 돌아가니

**코**끝이 땅에닿을 정도로 사과해도

**토**사에 객란까지 원인을 못밝히니

**포**괄적 정책으로 나라의 살길찾아

**호**평을 들려지는 대책을 강구하라!

**가**시밭길을 걷다가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나**에게 돌팔매질은 고사하고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다!

**라**고, 하니,,,,! 이런 경우를 어찌 해야 합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수렁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고 하여도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기정부에서는 정직한 정치를 펴서

**카**지노같이 도박을 일삼는 바다이야기가 뉴우스를

**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오!

**파**란(波瀾)을 겪은 억울한 사람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지 마시구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는데도

나날이 무덥다고 야단들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투듯 이불을 서로 뺏어 덮으려고 할 것이다...!

라인(line)조직이 무너지듯 서서히 기온이 하강하여

마치 도미노(domino)이론 현상처럼 머지않아 산과 들은 단풍으로

바뀔 터인데.....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으리오.....?

사랑을 노래하는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머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지겠지 .....!

자연의 법칙에 의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차질없이 돌고 돌아가는 세월속에서 한장의

카드(card)라도 맞지 않으면 보기 흉한 카아드섹션(card-section)이 되지요!

타는 듯한 찜통 더위 속에서도 가을이 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높아져 보이기 때문이로다.

카아드섹션(card-section) : 운동장이나 관람석에서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빛깔의 카드를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바꾸어 들어, 글자, 또는 얼굴 모양등 하나의 통일된 내용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집단적 구성미의 표현수단을 말합니다.



**감**옥에 창살이 없다면 그것은 관(棺)일 것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담**이 높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람**상(濫想)으로 집착하여 느낌이 옵니다!

**맘**대로 휘두른 총칼에 무참하게 쓰러져서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정도였고

**삼**일이 멀다하고 갖은 고문을 가했는데

**암**울했던 과거의 오욕의 역사는 덮어두고

**잠**들지 못한 영혼들의 원한을 풀지 않는구나!

**참**을 래야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속에서 기절하며

**깜**깜하고 어두운 형무소에서 자행된 일들을

**탐**찰(探索)해야 할 관료들은 수수방관하고

**팜**플릿을 돌리며 한 쪽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으니

**함**구(含垢)하고 살아온 독립운동가의 집안을 울리는구나!

팜플릿(=pamphlet) : 설명, 광고 등을 엮은 작은 책자

강요에 의한 억지사랑이 어찌

남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당장 그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랑 18 세의 어린 꽃봉오리가 금수(禽獸)같은

망나니를 만났으니 어찌할꼬...?

방관자에 불과한 제삼자가 어찌 그 쓰라린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까요...?

앙금이 앓을대로 앓아 석고(石固)처럼 굳었으니

장미꽃 같은 정열의 불길이 꺼진 지 오래일세...!

창파에 배를 띄우는 사공의 뱃노래가

강강춤의 리듬과 맞지 않듯이 인생도 또한

탕국에 양주보다는 약주가 제격인 것을 어찌하여

팡세의 음악에 시조(詩調)를 읊는단 말이오...!

항상 부모님 말씀 얹듣고 조심하지 않은 탓이오!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곱게 쳐려입은

**노**인이 꾸부정한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도**로에서 힘겹게 걸어가는구나..!

**로**맨스 같은 젊었던 청춘 시절을 회상하며 백발이 된

**모**발(毛髮)을 쓰다듬어 나도 엇그제 검은 머리가 어느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발이 되었구려..!

**소**시적(少時的)에는 그렇게도 많은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갈데 없는 몸이 되었으니 찾는 이가 없구나..!

**조**석(朝夕)이 다르게 쇠약(衰弱)해져 가는 몸을 지탱하며

**초**라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여도

**코**도 약해졌는지 콧물도 힘없이 떨어지네....!

**토**담집을 짓고 영원히 잠들 곳으로 갈 몸이

**포**식(飽食)을 한 기억도 없고, 못 먹은 기억도 소용 없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하여도 소용이 없구나..!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없이

**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도**(度)가 지나치면 결국 않되느니...!

**로**자리오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이 소중한데, 이 사회가

**보**막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었구나...!

**소**경 매질하듯 한다는 속담처럼 마치

**오**물장 같이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조**그만 실뱀이 온 바닷물을 다 흐리고

**초**롱초롱한 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저

**코**흘리게 어린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토**스하듯 가볍게 넘겨야 할 일이 아니라

**포**악(暴惡)한 무리들은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호**천통곡(呼天痛哭)을 하도록 다스려야 할 것이다!

주해

로자리오(rosario : 포르투갈 어 , 염주가 달린 십자가)

토스(toss) : [동사]THROW |(가볍게 · 아무렇게나) 던지다.

호천통곡(呼天痛哭) : 하늘을 부르며 목놓아 울.

**기**승을 부리는 삼복지경(三伏之傾) 무더위에  
**나**나 나나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을....!  
**디**밀고 들어설 틈도 없는 좁은 개울가 그늘에서  
**리**듬(rhythm)에 맞추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 밖에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비**오듯 하는 땀을 좀 식히려고 개울에 발을 담그니  
**시**원한 느낌보다 불쾌한 느낌이 드는구나...!  
**이**토록 오염시켜 놓은 쓰레기며 음식물 찌꺼기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치**우는 사람은 없고 내다버리는 사람만 있으니  
**키**가 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깨끗하게 놀라' 고, 말했다간  
**티**격태격 싸움만 하기 일쑤인 요즈음의  
**피**서지 풍경을 바라보며 대자연의 환경이  
**히**프(hip)를 때리는 것 같아 앓아 있을 수가 없구나....!

리듬(rhythm) : 1.리듬; 율동. 2.(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변화, 리듬.

히프((hip) : 히프, 둔부(臀部), [명사](허리와 다리가 만나는) 허리께[골반 부위]; 둔부, 엉덩이; 고관절

## 重傳 이희빈 가나다라행시 제4권

블로그    重傳/이희빈 블로그    <http://blog.daum.net/hblee9362>

저자        重傳 이희빈

발행일     2014.10.12 12:12:47

 블로그